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남 영 옥¹⁾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 상 준²⁾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 및 성비행의 정도와 이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알아 보고, 성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남녀 중·고등학생 1,5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t-검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7.8%가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후 청소년의 4.0%가 성추행을 시도하였고, 3.0%는 성폭행을 하였으며, 2.2%는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음란물 중독 정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이 성추행, 성폭행,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넷째, 성추행, 성폭행,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비행을 시도한 청소년의 정신과적 증상수준이 성비행을 시도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성비행 경험 청소년들 중 T-score 70점 이상인 청소년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 이들이 임상적으로 유의한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인터넷 음란물 중독, 성비행, 정신건강

1) 교신저자 : 남영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E-mail : yonam@cu.ac.kr

2)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I. 서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인구가 3천만 명에 이르렀고, 6세 이상 국민의 65%가 일주일 평균 12.5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KT문화재단, 2004). 인터넷 이용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정보화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성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음란물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고 유혹받게 된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음란물에 접촉하게 되면서,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된다(어기준, 2002). 이에 인터넷상의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음란물에 과도하게 접촉함으로써 야기되는 인터넷 음란물 중독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이란 음란 동영상이나 음란사진, 음란소설 등과 음란채팅 등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란성 정보를 말하며(주리에·하승수·권석만, 2002), 인터넷 음란물 중독이란 이러한 음란정보에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현상을 말한다(Young, 2001). 최근 1,5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에 관한 조사(KT문화재단, 2004)에서 중학생의 30%, 고등학생의 49%가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었고, 청소년의 15%는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진(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21.3%가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었으며, 이해경(2002)의 연구에서는 5.63%가 인터넷 음란물과 음란채팅에 중독되었고, 김민(2003)은 5.73%의 청소년이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Cooper와 Scherer, Boies, Gordon(1999)은 9,177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 중 8%가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현재의 문제를 부인하고, 성적 부진, 대인관계의 어려움, 관계상실 등의 부정적인 결과에도 계속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성적 활동을 추구한다(Cooper, Delmonico & Burg, 2000). 그리고 Bingham과 Piotrowski(1996)는 음란물 중독자들이 부적절한 사회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으로 노골적인 환상에 심취해 있고, 허구적인 상상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며, 인터넷 음란물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다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Young(2001)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보던 사람들이 점차 음란물을 탐닉하게 되면서 성적 상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강박적 양상을 보이는 인터넷 음란물 중독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중독현상은 청소년의 성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과 음란채팅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성폭력과 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성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아미, 2000). 이처럼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악영향은 음란물을 접촉한 후, 실제로 이를 모방한 다양한 성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성비행은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는 성관련 일탈행위 뿐 아니라 성인에게는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의 신분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말한다(법무부, 1990). 이에 해당되는 행동들은 성희롱, 이성을 만지거나 강제로 키스나 포옹과 같은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성추행, 이성과의 성관계, 성폭행(강간), 청소년 성매매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음란물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사회적 학습과

정을 통해 충동적으로 음란장면을 모방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며(Bandura & Huston, 1961), 이러한 장면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성비행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본 고등학생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음란물을 전송하고 성추행을 하였으며, 성관계를 맺도록 협박한 사건(중앙일보, 2004. 3. 6)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가져오는 유해성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게 되고, 청소년기의 성적 욕구를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충동적으로 해소하는 성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황정희(2000)의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의 73%가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고, 7.9%는 성추행을 하였고, 3.9%는 성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성비행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함께 조사한 주식진(2002)은 남자청소년의 38%가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후에 성관계를 맺었고, 16%는 성추행을 하였으며, 11%는 성폭행을 나타냈다.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 중독은 이성과의 성접촉이나 성관계뿐만 아니라 강간과 같은 심각한 성비행과도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영옥과 이상준(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1,692명 중 50.2%가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해 본 경험이 있었고, 4.7%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약 9%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실제 성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인문계 고등학생은 약 4.5%, 실업계 고등학생은 약 15%가 성비행을

범하였고, 여학생은 약 4%만 성비행을 경험한 반면, 남학생은 약 12%가 성비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숙(2003)의 연구에서도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를 포함한 성비행은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학생에 비해 더 높았으며, 신호식과 이경주(2003)의 연구에서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성비행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자료(2004)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전년도보다 32%나 증가했고, 이들 중 86%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04. 12. 10). 청소년보호위원회(2004)가 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 접촉경로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채팅이 7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한다(중앙일보, 2004. 11. 24).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고,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 접촉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음란물 장면을 상상하고, 충동적으로 성행위를 모방하는 성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음란물 접촉으로 야기되는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비행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성비행 청소년들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책임감이 없고, 거절에 대한 감정과 분노를 성적인 행동으로 표현한다(김명화, 1998; 김정아, 1999; Burt, 1980; Rapaport & Posey, 1991; Stevens, 2001). Popovic 등(1995)은 1,000명의 성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비행 청소년들이 의료적이고 정신병리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Bagley는 성비행 청소년들이 일

반청소년들에 비해 과잉행동, 우울, 불안, 낮은 자아개념, 자살생각 및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으며(신기숙, 2002), 246명의 남자 성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Becker과 Kaplan(1993)의 연구에서는 42%의 청소년이 심각한 우울증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211명의 성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MMPI를 분석한 연구(유석진·노명래, 1982)에서는 26.5%가 신경증, 성격장애, 정신병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신기숙(2002)의 연구에서는 성비행 청소년의 8%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보였고, 잦은 우울과 불안, 자살사고의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청소년의 성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성비행이 심각하게 야기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후에 성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비행이 정신건강의 어떤 차원과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성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의 정도를 살펴보고,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들의 성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인터넷 음란물 중독은 성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성비행 경험 유무에 따라 정신건강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성비행은 정신건강의 어떠한 차원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가?

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전체 126개 중·고등학교 중 비비례층화표집을 사용하여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9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담당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년별로 2개 학급, 학교당 총 6개 학급씩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중학생 630명, 인문계 고등학생 720명, 실업계 고등학생 500명으로 총 1,850명이며, 일차적으로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1,742명 중 인터넷 음란물을 한 번도 접촉해 본 경험이 없는 164명(9.4%)의 응답자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1,578명(90.6%)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도구

인터넷 음란물 중독 척도

Young(2002)이 개발한 인터넷 음란물 중독검사(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개 문항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의 합으로 중독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계가 0~30점이면 '일반이용집단', 31~100점은 '중독집단'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 인터넷 음란물 이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 여부, 온라인 상황에서의 성적 강박행동 여부 및 의존적 특성, 인터넷 음란물로 인한 대인관계 성향 변화, 통제조절력과 행동상의 문제, 비정상적인 온라인 성적 행동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506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척도

정신건강 측정도구는 Derogatis 교수 등에 의해 개발된 개정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Distress Checklist-90-Revision: SCL-90-R)를 한국 실정에 맞도록 김재환과 김광일, 원호택(1990)이 재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SCL-90-R은 심리치료나 향정신병 약물사용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뿐만 아니라 심리진단검사로서도 쓰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9개의 정신과적 증상 차원(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 1개의 심리적 증상을 대표한다. 피험자는 당일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응답하게 되어있다. 응답항목은 5개(전혀 아니다=0에서부터 상당히 그렇다=4)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과적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9개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적대감 .8280에서 우울 .9127까지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826으로 나타났다.

T-score는 간이정신진단검사척도(SCL-90-R)의 모집단(평균 50, 표준편차 10)에 대한 점수로써, 임상적 정신병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정신과 등의 임상현장에서 T-score가 70점 이상이면 병리적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규준에 의하면, 16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고등학생 규준을 잠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성비행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성

비행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발생한 성비행을 말한다. 즉,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채팅을 한 후에 실제로” 성비행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비행 경험의 유형은 첫째,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시도한 경험”(이하 ‘성추행’), 둘째,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경험”(이하 ‘성폭행’), 셋째,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경험”(이하 ‘청소년 성매매’)의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3년 4월부터 5월까지 연구목적에 맞게 선정된 중·고등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임 교사에게 의뢰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의 실태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터넷 음란물 중독이 성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셋째, 성비행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비행에 따른 9개 차원의 정신건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 실태

조사대상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척도 점수에 따라 0~30점은 ‘일반이용집단’으로, 31~100점은 ‘중독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92.2%(1,455명)는 ‘일반이용집단’에 포함되었고, 7.8%(123명)는 인터넷 음란물 ‘중독집단’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중 13.8%(111명), 여학생 중 1.6%(12명)가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의 8.4%, 인문계 고등학생의 6.1%, 실업계 고등학생의 9.3%가 인터넷 음란물 중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비행 실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성비행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현실에서 발생된 성비행을 중심으로 하였다. 성비행 실태를 성추행, 성폭행,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비행 집단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먼저, 성추행의 경우, 조사대상 청소년의 4.0%(62명)가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남학생이 6.5%(52명), 여학생이 1.3%(10명)이었고, 중학생 3.0%, 인문계 고등학생 3.0%, 실업계 고등학생 6.0%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

표 1.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 분포

단위: 명(%)

일반적 특성	집단구분		전체
	일반이용집단	중독집단	
전 체	1,455(92.2)	123(7.8)	1578
성별	남학생	695(86.2)	806
	여학생	760(98.4)	772
학교급	중학교	423(91.6)	462
	인문고	602(93.9)	641
	실업고	430(90.7)	474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비행 집단 분포

단위: 명(%)

일반적 특성	성추행			전체	성폭행			전체	청소년 성매매			전체
	비경험	경험			비경험	경험			비경험	경험		
전체	1,507(96.0)	62(4.0)	1,569	1,522(97.0)	47(3.0)	1,569	1,541(97.8)	35(2.2)	1,576			
성별	남학생	750(93.5)	52(6.5)	802	758(94.5)	44(5.5)	802	779(96.8)	26(3.2)	805		
	여학생	757(98.7)	10(1.3)	767	764(99.6)	3(.4)	767	762(98.8)	9(1.2)	771		
학교급	중학교	446(97.0)	14(3.0)	460	448(97.4)	12(2.6)	460	449(97.4)	12(2.6)	461		
	인문고	620(97.0)	19(3.0)	639	628(98.3)	11(1.7)	639	634(99.1)	6(.9)	640		
	실업고	441(94.0)	28(6.0)	469	446(95.1)	23(4.9)	469	458(96.6)	16(3.4)	474		

의 3.0%(47명)가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남학생이 5.5%(44명), 여학생이 0.4%(3명)로 나타났고, 중학생 2.6%, 인문계 고등학생 1.7%, 실업계 고등학생 4.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2.2%(35명)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남학생이 3.2%(26명), 여학생이 1.2%(9명)이었고, 중학생 2.6%, 인문계 고등학생 0.9%, 실업계 고등학생 3.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성비행 유형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이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과의 관계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이 성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이다. 청소년의 성비행에 대한 예측변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성별과 학교급이 투입되었다.

먼저, 성추행의 경우, 제시하고 있는 모델($\chi^2=59.151$, $p<.001$)에 따르면, 인터넷 음란물 중

독은 성추행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음란물 중독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청소년이 성추행을 할 예측 가능성은 약 2.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음란물 중독 정도가 심해질수록 성추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성폭행에서 제시된 모델($\chi^2=78.866$, $p<.001$)에서는 인터넷 음란물 중독이 성폭행 가해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 중독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청소년이 성폭행을 시도할 가능성은 약 2.5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청소년 성매매의 모델($\chi^2=36.722$, $p<.001$)에서도 인터넷 음란물 중독은 청소년 성매매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음란물 중독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청소년이 성매매를 할 가능성은 약 2.5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성별이 성추행과 성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은 성폭행과 청소년 성매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표 3.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이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 : Logistic 모델

구 분	성추행 (n=1108)			성폭행 (n=1108)			청소년 성매매 (n=1114)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성별	-.960*	5.803	.383	-2.218**	8.782	.109	.253	.224	1.289
학교급	-.492	2.347	.612	-.796*	4.002	.451	-.991*	3.889	.371
인터넷 음란물 중독	.787***	35.584	2.196	.900***	37.886	2.460	.922***	30.443	2.514
χ^2 (df)	59.151*** (3)			78.66*** (3)			36.722*** (3)		
-2 Log (R ²)	329.882 (.176)			224.989 (.286)			179.526 (.184)		

** $p<.01$ *** $p<.001$

주. 종속변수(0=성비행 비경험, 1=경험), 가변수(성별: 0=남학생, 1=여학생 학교급: 0=실업고, 1=인문고)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음란물 중독은 성추행, 성폭행, 청소년 성매매 등의 모든 성비행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 중독 정도가 심해질수록 청소년들이 성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비행 청소년의 정신건강

성비행에 따른 정신과적 증상 수준

표 4는 청소년의 성비행 경험 유무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성비행 경험집단 청소년들이 비경험집단에 비해 정신과적 증상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포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먼저, 성추행의 경우($t=6.89, p<.001$), 가해 경험집단의 정신과적 증상 점수가, 비경험집단보다 0.72점 높았으며, 성폭행의 경우($t=7.04, p<.001$), 가해 경험집단의 정신과적 증상 수준이 비경험집단보다 0.7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t=5.22, p<.001$), 경험집단의 정신과적 증상 수준이 비경험집단에 비해 0.80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나 음란 채팅을 한 이후에 성추행 등의 성비행을 시도한 청소년의 정신과적 증상 수준이 성비행을 시도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성비행 경험과 정신건강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비행 청소년의 정신과적 증상 T-score

표 5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그리고 T-score 대조표를 사용하여 성비행 청소년의 9개 차원의 정신과적 증상 T-score 평균값과 T-score가 70점 이상인 청소년들의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T-score는 간이정신진단검사 척도의 모집단에 대한 점수로서, T-score가 70점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 즉, T-score가 70점 이상일 경우 해당 청소년의 임상적 정신병리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성비행 비경험집단에 비해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경험집단의 T-score 평균점

표 4. 청소년의 성비행 경험 여부에 따른 정신과적 증상 수준 차이

성비행 유형	집단구분(n)	정신과적 증상 수준		
		M	SD	t
성추행	경험(62)	1.55	0.67	6.89***
	비경험(1507)	0.83	0.81	
성폭행	경험(47)	1.55	0.68	7.04***
	비경험(1522)	0.84	0.72	
청소년 성매매	경험(35)	1.65	0.68	5.22***
	비경험(1541)	0.85	0.91	

*** $p<.001$

표 5. 성비행 청소년의 정신과적 증상 T-score

단위: 명(%)

성비행 비경험 (n=1487)									
구 분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T-score 평균값	51.0	46.5	48.0	48.5	48.0	49.5	48.0	49.0	49.0
T-score 70점 이상	160(10.8)	89(5.9)	100(6.7)	101(6.8)	83(5.6)	86(5.8)	96(6.5)	149(10.0)	128(8.6)
성추행 (n=62)									
T-score 평균값	65.6	57.0	57.0	57.4	58.8	58.3	63.5	60.4	62.2
T-score 70점 이상	27(43.5)	11(17.7)	15(24.2)	13(21.0)	9(14.5)	10(16.1)	28(46.1)	20(32.3)	26(41.9)
성폭행 (n=47)									
T-score 평균값	65.2	55.6	57.5	56.5	57.5	56.9	66.5	60.8	63.7
T-score 70점 이상	22(46.8)	6(12.8)	8(17.0)	6(12.8)	4(17.0)	5(10.6)	24(51.1)	12(25.5)	19(40.4)
청소년 성매매 (n=35)									
T-score 평균값	67.6	56.4	58.1	59.8	60.6	59.1	70.1	61.4	63.4
T-score 70점 이상	17(48.6)	4(11.4)	6(17.1)	8(22.9)	6(17.1)	5(14.3)	21(60.0)	9(25.7)	15(42.9)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중 T-score 70점 이상인 청소년들의 비율도 성비행 경험집단이 비경험집단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의 경우, 정신과적 증상 T-score 평균값은 각 차원별로 57.0점에서 65.6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들 중 T-score 70점 이상인 청소년들은 공포불안 28명(45.1%), 신체화 27명(43.5%), 정신증 26명(41.9%), 편집증 20명(32.3%)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의 경우, 정신과적 증상 T-score 평균값은 각 차원별로 55.6점에서 66.5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중 T-score 70점 이상인 청소년들은 공포불안 24명(51.1%), 신체화, 22명(46.8%), 정신증 19명(40.4%)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정신과적 증상 T-score 평균값은 각 차원별로 56.4점에서 70.1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중 T-score 70점 이상인 청소년들은 공포불안 21

명(60.0%), 신체화, 17명(48.6%), 정신증 15명(42.9%) 등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성비행 유형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공포불안과 신체화, 정신증은 성추행과 성폭행보다는 청소년 성매매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비행 경험 청소년들 중 다수가 정신과적 증상 T-score 7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임상적 수준의 정신과적 증상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정신과적 증상 차원 중 공포불안과 신체화, 정신증, 편집증 등을 임상적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 및

성비행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며, 성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대부분(92.2%)이 ‘일반이용집단’에 포함되었고, 7.8%는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반이용집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7.8%의 청소년이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1,42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민, 2003)에서 인터넷 음란물 중독이 5.7%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1,692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영옥·이상준, 2002)에서 인터넷 음란물 중독이 7.6%로 나타난 결과와는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었다는 결과를 볼 때, 인터넷 음란물 중독이 청소년들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한다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비행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4.0%는 성추행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3.0%는 성폭행을 가해한 경험이 있으며, 2.2%는 청소년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56명의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황정희(2000)의 연구에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후, 7.9%는 원하지 않은 대상에게 성추행을 하였고, 3.9%는 성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고, 300명의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 중 남자만을 대상으로 한 주석진(2002)의 연구에서 인터넷 음란물 접

촉 청소년의 16%가 성추행을 하였고, 11%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석진의 연구대상이 비행청소년들을 포함한 남자청소년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1,489명의 청소년들 중 1.4%가 청소년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연구(고성혜, 2000) 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1,927명의 청소년 중 약 2%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권해수, 2001)와는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며, 1,692명의 청소년들 중 인터넷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매매 경험이 4.7%로 나타난 연구(남영옥·이상준, 2002)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인터넷 음란물 중독 정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이 성추행, 성폭행,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음란물 중독 정도가 성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성비행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황정희, 2000; 주리애 등, 2002)와 인터넷 음란물 중독은 이성과의 성접촉이나 성관계뿐 아니라 강간과 같은 심각한 성비행과도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주석진, 2002)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물 중독에 빠져들수록 성행위 장면에 대한 모방심리가 커져 충동적으로 현실세계에서 성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 성추행과 성폭행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들(남영옥 · 이상준, 2002; 신효식 · 이경주, 2003)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자체는 본래 여학생이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매매가 인터넷을 매개로 하면서 점차 성별의 구분이 사라지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급에서 성폭행과 청소년 성매매가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남영옥과 이상준(2002)의 연구, 김윤숙(2003)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청소년의 성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성추행 등의 성비행을 시도한 청소년의 정신과적 증상 수준이 성비행을 시도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비행 청소년들이 비경험청소년들에 비해 보다 더 높은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비행 청소년들이 의료적이고 정신병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는 연구(Popovic et al., 1995)와 남자 성비행 청소년의 42%가 심각한 우울증을 보인다는 연구(Becker & Kaplan, 1993), 성비행 청소년의 26.5%가 정신병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나타낸 연구(유석진 · 노명래, 1982), 그리고 성폭력 청소년의 8%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나타낸 연구(신기숙, 2002)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섯째, 성비행 경험청소년들은 비경험청소년들에 비해 9개 차원의 정신과적 증상 T-score 70점 이상인 분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증상차원에 따라 높게는 성추행을 한 청소년의 45.1%, 성폭행 가해 청소년의 51.1%, 성매매 청소년의 60.0%가 병리적 수준의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과적 증상 중 공포불안과 신체화, 정신증, 편집증 등의 증상을 임상적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 있어 성비행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임상적 개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에서 성비행 청소년들이 두드러지게 경험하는 공포불안과 신체화, 정신증, 편집증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 및 성비행 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개입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7.8%가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중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입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인터넷 음란물 중독은 비교적 최근의 병리적 현상으로 치료적인 접근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임상적 개입이 필요하며, 인지치료모델에 근거한 치료적 접근이 적절하다고 본다. 인터넷 음란물중독은 비합리적인 사고와 인지적 왜곡에 기인한다. 이들은 인터넷 음란물 접촉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성적 욕구가 해소될 것이라는 자동적 사고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인터넷 음란물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이에 이들의 인지구조의 왜곡현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중독행동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후에 성추행, 성폭행,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부터 떼어 놓는 것은 점점 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을 본 후에 이에 대한 모방행동으로 성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중간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간과정에 대한 개입은 인터넷 음란물과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성비행 청소년들의 다수가 병리적 수준의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성비행의 결과에 따라 소년원 등의 시설을 통해서 교정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들에 대한 접근은 비행행동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험하는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성비행 청소년들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개입은 이들의 왜곡된 사고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행동을 수정하는 인지행동전략에 기초한 치료프로그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터넷 음란물 중독 척도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임상전문가의 대면적 진단보다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터넷 음란물 중독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실제로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

는 인터넷 음란물 중독 척도를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임상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매개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성혜 (2000). 원조교제 실상과 대책. 자녀안심운동협의회 2000년 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
- 권해수 (2001). 한국청소년상담원 소식지 7월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명화 (1998). 청소년 강간 가해자의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섹스 중독실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1), 53-83.
- 김윤숙 (2003).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의 차이. 대전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환 · 김광일 · 원호택 (1990). 간이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출판사.
- 김정아 (1999).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옥 · 이상준 (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85-212.
- 법무부 (1990). 범죄백서, 법무부.
- 신기숙 (2002).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사

- 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효식 · 이경주 (2003). 고등학생의 성폭력 경험과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1), 69-79.
- 여기준 (2002). 청소년 음란물 중독의 원인과 대책. 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학회*, 33-48.
- 유석진 · 노명래 (1982). 비행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 논문집*, 5(3), 341-349.
- 이해경 (2002).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중독 경험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예측변인들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9(1), 91-114.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및 중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청소년정책연구* 2, 152-179.
- 주리애 · 하승수 · 권석만 (2002).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찾는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65-982.
- 주석진 (2002). 사이버 섹스 중독이 청소년의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2004. 3. 6. 채팅서 만난 초등생 성추행 및 협박.
- 중앙일보. 2004. 11. 24. 인터넷 채팅 청소년성매수 온상.
- 중앙일보. 2004. 12. 10. 청소년 성매매 저연령화 추세 뚜렷. <http://www.ilgan.joins.com/new>
- 황정희. (2000). 온라인상의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T문화재단. (2004). 청소년 10명중 1-2명, “나는 인터넷 중독자”. 즐넷매거진, No. 010.
- Bandura. A. & Huston. A. C. (1961). Identification as a Process of Incidental Learning.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2), 311-318.
- Becker, J. V. & Kaplan, M. S. (1993).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the Juvenile sex offender. In H. E. Barbaree & W. L. Marshall(Eds.). *The Juvenile Sex Offender*,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
- Bingham, J. E. & Piotrowski, C. (1996). On-line sexual addiction: A contemporary enigma. *Psychological Reports*, 79, 257-258.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 Cooper, A. Delmonico, D. & Burg, R. (2000). Cybersex users, abusers, and compulsivers: New findings and implication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7, 5-29.
- Cooper, A., Scherer, C., Boies, S. & Gordon, B. (1999). Sexuality on the Internet: From Sexual Exploration to Pathological Express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0(2), 154-164.
- Popovic, D., Dordevic, M., Krstic, A., Popov, I. & Tasic-Litavski, M. (1995). Sexual delinquency in Viovodina with special regard to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Journal of Clinical Forensic Medicine*, 2, 13.
- Rapaport, K. R. & Posey, C. D. (1991). sexually Coercive College Males. In A. Parrot & L. Bechhofer(Eds.), *Acquaintance Rape: The hidden crime*. USA: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Stevens, J. D. (2001). *Inside the mind of sexual offenders: Predatory Rapists, Pedophiles, and Criminal Profiles*, New York: Authors Choice Press.
- Young, K. S. (2001). *Tangled in the WEB: Understanding Cybersex from Fantasy to Addiction*, Bloomington: 1st Books.
- Young, K. S. (2002). *Getting Web Sober: Help for Cybersex Addicts and their loved ones*, https://secure4.mysecureorder.net/netaddiction/ebooklets/getting_web_sober-sales.html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Psychiatric Symptoms to Sexual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Young-Ok Na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ang-June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o what extent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sexual delinquency spread among adolescents and what relationship there was between the two. And it's additionally attempted to identify how sexual delinquency and psychiatric symptoms were associated with one another.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578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7.8 percent of the youngsters investigated were addicted to Internet pornography. Second, 4.0 percent kissed or hugged the opposite sex by force. And 3.0 percent had sexual relations by compulsion. 2.2 percent had ever had sexual relations to get money. Third, the adolescents who had ever committed sexual delinquency such as sexual infamies, rape or youth prostitution showed more psychiatric symptoms than the non-experienced group. Fourth, those who were more showed more psychiatric symptoms were more likely to commit sexual delinquency such as forcible kissing, hugging or sexual relations or sexual dealing. And those who were committed sexual delinquency had experienced clinically significant psychiatric symptoms.

Keywords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sexual delinquency, psychiatric symptoms